

### 4.3 중동에서 극동으로 이동한 흔적들<sup>1)</sup>

우리 민족을 포함한 극동지방의 민족들이 바벨탑사건이 일어났던 중동지방에서 이동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 그 중간지역에 많은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따라서, 추정되는 민족 대이동 경로의 화석학적, 문화적, 풍습적, 언어와 문자적, 유물학적, 신화적, 인체학적인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는 크리스찬 엘리프들이 주도해 나가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필자가 이 방면에 흥미를 가지고 얻은 몇 가지 견해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먼저, 세계의 모든 언어와 문자가 바벨탑사건이 일어났던 중동지방에서 출발하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BC 3200년경) 문자는 갈데아 우르지역이었던 시날평양의 수메르의 토판 췌기문자이며 여기에서 에짚트문자, 시나이문자와 페니키아문자를 거쳐서, 아랍문자, 그리스, 인도, 라틴 및 아시아의 여러 문자로 분파되어 나갔다.

우리나라의 훈민정음은 산스크리트, 파스파, 중국의 전서, 히브리계의 가림토 등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에서부터 세종대왕의 창제설에 이르는 다양한 학설에 대한 논쟁이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문자의 파생경로는 중동지방에서 시작하여 세계 각지로 전파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중국의 갑골문자는 은나라 폐허에서 발굴된 것으로 공식적인 제조연대는 기원전 16세기경으로 중동의 수메르문자보다 1,600여년이나 뒤진다. 이는 중국문자도 중동에서 이주해 온 민족들이 만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언어나 문자가 일조일석에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와 문자는 매우 의미있는 인류이동의 흔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상세히 기술할 것이다.

한자속에 창세기의 내용이 많이 압축되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260자의 한자에 대한 창세기적 해석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역서로 발간되어 시판이 되고 있다. 한자의 고대어에 가장 유사하다는 광둥어(廣東語)로 상제(上帝)는 '상띠' 또는 '상다이'로 발음하는 데,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창17:1)의 별칭인 엘 샤다이(*El Shaddai*)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꼭 같은 아시아 북방 지역(북부 중국인 포함)의 몽골리언들은 태어날 때 엉덩이에 검푸른 몽골반점을 가지며, 우리와 같이 우랄 알타이어계에 속한다. 이에 반하여 중남부 중국과 동남아지방은 몽골반점이 없으며 중국어나 말레이, 인도네시아어의 어순(語順)은 영어와 유사하다.

(2) 북방계는 새(鳥)의 문화를 가진다. 새는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일에 곧잘 등장하곤 하였다. 예컨대, 노아의 홍수말기에는 비둘기와 까마귀가 땅에서 물이 빠진 것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아합왕때 엘리야선지자에게 떡과 물고기를 물어다 준 것은 까마귀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새의 이미지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을 넣은 법궤위에 날개를 편 천사의 조각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북방계는 새, 그 중에서도 검은 새를 숭상하여 왔음을 중앙아시아의 많은

1) 임변삼,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찾아서(서울: 두란노, 2002), 4장 참조. 창조과학원론 이름변경

유물들이 증거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새(鳥)문화의 흔적은 삼한시대의 **소도(蘇塗)**이다. 이것이 후일 일본으로 건너가 신사(神社)의 정문에 서 있는 붉은 색(피를 상징)의 **도리이(鳥居)**로 변모한 것으로 한일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일본 최대의 민속축제인 8월의 **오봉마쓰리** 때 각 마을에 있는 신사(神社)에서 머리에 띠를 두른 청년들이 어깨에 메고 나오는 **미꼬시(神輿)**는 우리의 상여(喪輿)와 비슷하다. 좁은 동네 골목들을 누비고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며 구호를 외치며 축제의 분위기를 높인다. 미꼬시에 모셔진 궤 위에는 새가 모셔져 있다. 이 새(鳥)는 출애굽시에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할 때 운반하였던 법궤를 덮고 있었던 천사의 날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일본 레무난또지(誌)의 발행인인 구보유정(久保有政)은 해석한다.

**(3) 반면에, 중국과 그 영향을 받은 동남아는 용(龍)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성경에 사탄의 상징으로 나오는 가상적 동물인 용은 시리아와 바벨론을 거쳐 중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하무라비대왕 이후부터 바벨론의 주신이 된 마르둑(Maruduk)은 여우처럼 긴 목을 하고 있는 데, 이는 용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중국의 명절시마다 용놀이를 하는 관습은 중국인이 머무는 곳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이러한 용의 문화가 당나라 때부터 가나안 족속의 문화중심지였던 두로와 시돈 그리고 시리아에서 실크로드를 타고서 중국으로 유입되어 중국에서 용의 문화를 꽃피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왕궁인 자금성(紫禁城)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용의 돌조각이 666마리나 새겨져 있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에서는 왕궁을 비롯한 큰 건물의 처마끝이 하늘을 향해 뾰족하게 올라가 있는 데 이는 뱀의 꼬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사탄은 성경에 '옛 뱀'으로 표현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왕권의 상징이 원래 봉황(鳳凰)이었으나 중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영향으로 용의 문화에 물든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비교적 근간에 창건된 고찰(古刹)의 탕화나 조각에도 이러한 용의 문장이 많이 장식되어 있음은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중국은 언어, 어순, 생활관습(의자, 침대생활) 등의 많은 면에서 우리와 매우 이질적인 반면 일본은 오히려 모든 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민족적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4) 일본에는 유대인과 관련한 유적과 풍습이** 많아 우리의 관심을 끈다. 왕들을 제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이세신궁(伊勢神宮)**의 기왓장에 새겨진 <다윗의 별>이나 황실을 상징하는 **미카도**(히브리어로 **갓출신**)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12지파중 갓족속의 일부가 이곳까지 피신하여 천황가(家)를 이루었음을 나타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어떤 학자는 일본의 천황가는 비류백제가 본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본의 중앙정권인 야마토(大和)가 출현한 8세기초까지 교토(京都)와 나라(奈良)일대의 **깁끼(近畿)**지방에서는 우리 말과 음식이 널리 통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

다. 이 밖에도, 일본의 고서(古書)에는 천여개의 히브리어가 들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유대인이 일본열도에 끼친 영향에 대해 관심을 끌게 한다.

(5) 우리나라도 유대인들과 비슷한 풍습과 역사적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비류와 온조의 아버지는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이며, 그 할아버지 **해부루(解夫樓)**는 히브리인임을 암시하는 증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단군조선을 세운 **단군(檀君)**은 디아스포라가 된 이스라엘 10지파중 하나인 **단지파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아직 가설에 지나지 않지만 정설은 이러한 비공인 자료들이 모아진 후 학술적 검토와 확인과정을 거치면서 정사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의 신을 쫓아 낸다는 **붉은 피(유월절의 어린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남아 있다. 남아(男兒)의 출생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추(어린 양의 피)와 숯(정결)**을 새끼줄에 메어다는 습관이나 장독대와 울타리 주변에 심었던 붉은 색의 **봉숭아와 멘드라미**는 에짚트를 탈출하기 전날 밤에 에짚트의 모든 장자나 동물들의 첫 새끼를 죽이는 천사의 침입을 막으려 했던 **유월절사건의 흔적**이라 생각된다. **동짓날에 붉은 팔죽**을 쑤어 악귀를 물리치려고 문지방과 담벽을 벌겍게 칠하거나 '꼬시레' 하면서 동지죽을 뿌리던 관습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화인 **무궁화(無窮花 Rose of Sharon)**는 <영원히 피어 있는 샤론의 꽃>으로 이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느브갓네살이 세운 신(新) 바벨론제국의 성문인 이쉬타르 게이트(Ishtar Gate)와 성벽에도 무궁화가 많이 새겨져 있으며 시리아로부터 우리나라에 이르는 시베리아의 여러 지방마다 무궁화가 <꽃중의 꽃>으로서 탐스럽게 자라고 있다고 **한민족기원대탐사팀**은 밝히고 있다. [김성일외; 한민족기원대탐사, pp 166-167, 한국 창조사학회간, 서울, 1999]

우리나라의 **단군에 대한 기록도 유일신사상**을 담고 있다. <규원사화>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하느님은 오직 한 분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하를 주관하시므로 넓고 넓어 들어 있지 않은 것이 없고 밝고 밝아 티끌 하나도 세어 나가지 않는다.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요 둘이 아니므로 오직 마음을 깨끗이 하여야 그 날에 이를 것이다." 우리의 토속신앙에 깊이 뿌리내린 **삼신(三神) 할멈** 이야기나 힌두교에 나오는 **삼신사상(Trimult)**도 성경의 삼위하나님(Trinity)의 사상이 변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우리의 **장자권제도**도 이스라엘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6) 중국의 초기문화는 바벨론의 후기문화와 매우 유사하며 전설적인 하(夏), 은(殷), 주(周)의 세 왕조는 종교적인 색채가 강했던 왕조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은나라는 우리와 같은 동이족(東夷族)이었으나 후일 만리장성이 축조되면서 동이족들간에 교류가 단절되면서 급속히 그 세력이 약화되었고, 마침내 고구려의 멸망을 계기로 오늘의 한반도로 영토가 축소된 것이다.

고대중국의 왕들은 진시황의 등장전까지는 **유일신(唯一神)인 상제(上帝)를 숭배**했

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공자(孔子)는 서경(書經)에서 "순(舜) 임금(BC 2230년경)은 상제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으며, "하늘(封祭)과 땅(禪祭)에 제사하는 의식들은 인간의 믿음에 의해 상제를 섬기는 습관"이라고 중용(中庸)에 기록하고 있다. 이 때 임금들이 낭송하는 기도문의 내용은 놀라우리만큼 성경의 창세기와 매우 유사하다.

중국의 명조(明朝)때 옛 황제들의 제사제도를 연구하는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1369), 그 결과 도교학자들에 의해 하, 은, 주 이래로(BC 2205-255) 계속되어 왔던 제사제도가 변질되었음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이 때부터 다시 주나라의 의식을 부활시켰다고 한다. 중국황제들은 북경 근교의 천단(天壇)에 올라 가서 옛날처럼 백성을 대신한 제사장의 자격으로 일년에 두차례씩 봉선제(封禪祭)를 지내어 오다가 청나라가 멸망하면서(1911)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한다.

진시황은 여러 면에서 특기할만한 인물이다. 중국의 역사를 왜곡하려고 400여명의 학자들을 죽이고 역사서를 불태우는 분서갱유(焚書坑儒)사건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중국을 통일하고 만리장성의 축조로 동이족을 갈라서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야벳족의 후예로 추정되기도 하는 그는 유일신께 대한 제사를 중지시켰으며 자신이 스스로 황제가 된다고 하여 진시황(秦始皇)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중국 남부의 산악지대에 사는 묘족(苗族)의 전승에 의하면, 자신들은 족장 '세아게익'의 11인 자녀중 5인이 분가하여 이룬 족속이며 다른 6인은 한족(漢族)이 되었다고 말한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의 조상은 고멜과 '누아'에게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판단한다면 이 전승은 묘족과 한족이 야벳계통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묘족은 양자강 이남의 광서성(廣西省)에 퍼져 살았으나 한족에게 밀리어 산악까지 피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임번삼역; 묘족에게 전승되어 온 창조이야기, 창조 78호, pp 3-8, 1992]

이 밖에도 중동지역으로 부터의 수 많은 인류이동의 흔적들이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다. 이를 주어 담아 분석, 연구하는 일이 진리를 추구하는 엘리트들에게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에, 라마피테쿠스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저명한 인류학자인 필립은 과거의 단일조상(폰지드)기원설에서 동물군별(폰지드, 라마피테쿠스, 호미니드)의 독립적인 진화설로 수정을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처음부터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으로 접근하는 것이어서 주목이 된다.

진화론자건 창조론자건 인류의 기원문제와 인종의 분화는 먼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이므로 그 누구도 과학적으로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진실을 규명하는 학문의 세계에서는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서로가 다른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진지하게 경청하고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실은 제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시된 온 쌍방의 이론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소개하며, 창조론과 진화론을 동등한 수준에서 비교 검토하는 교육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오늘의 교육현장에서는 오로지 진화론만 가르쳐지고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여러 이유로 매몰되었거나 왜곡이 된 역사들을 바르게 복원할 때 우리

앞에는 2천년전의 십자가사건이 생생하게 나타날 것이며, 그 너머로는 인류의 집단 반역사건인 바벨탑 공사 장면이 나타날 것이다. 그로부터 120여년 너머로는 도도하게 흐르는 노아시대의 거대한 홍수의 물결이 나타날 것이며, 다시 그 너머로는 동생을 돌로 쳐죽이는 카인의 살인극이 우리를 전율케 할 것이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하와의 범죄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며, 또 다시 그 너머로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는 감격적인 장면과 에덴의 아름다운 모습이, 해와 달과 별들을 탄생하는 웅장한 창조의 파노라마가, 그리고 마침내는 '만물생성의 제일원인'(Prima Causa)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